

유치원 시작 시간 앞당긴다... '오전 9시→8시'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 '2023~2027 유아교육 발전 계획 심의 전체 48.5% 원아, 오전 8시30분 이전 등원 마쳐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10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1시간 앞당기는 시범 사업은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한다.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해 유아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48.5%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했다. 오전 7시 이전 5.1%, 오전 7~8시 25.5%, 오전 8시~8시30분 18.5% 등이다. 오전 9시 이

전에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유치원도 42.1%로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근무 시간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하루 8시간으로 맞춘다. 중장기적으로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 20%를 기관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거쳐 시범 사업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는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소규모 유치원 통합(한울타리유치원) ▲어린

이집과의 통합(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함께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건을 고려한 교사, 전담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기관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한다. 현재 지난해 기준 9개 시도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 최소 보장시간(오후 6~8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표준교육과정,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초등교육과

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를 2027년까지 늘린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현재 1141개로 전체 13.3%에 불과하다. 일반 원아와 장애 원아가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지난해 8개)도 같은 기간 총 1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전체 교원 60%)의 사기 진작과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처우개선을 단계적 인상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기후위기 역행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후 재수립 촉구'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찰 "유아인과 함께 마약 투약한 공범도 수사"

경찰, 공범과 마약 투약한 정황 포착

배우 유아인(임종식·37)씨의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범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유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공범도 일부 더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한 뒤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다른 공범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유씨를 직접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당시 조사를 마친 뒤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밝힐 수 있는 사

실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불미스러운 일로(목소리 떨림)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서 알려진 사건 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답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대로 말했다"며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눈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씨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간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정을 요청했다. 같은 날 경찰은 유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씨의 모발도 확보한 뒤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유씨가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을 정황이 포착됐다. 유씨는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고, 코카인과 케타민 투약 정황도 드러났다. 김재환기자

여성 폭행하고 600만원 훔친 지명수배자... 둘 다 중국인

지명수배 상태에서 동포를 폭행한 뒤 수백만원의 금품까지 훔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0시55분께 제주시 연동의 B(여)씨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

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지갑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 600만원가량을 인출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미등록)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제주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서귀포시에서 폭력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집입) 혐의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